

Case Study of Core Competency Diagnosis Operation Procedures and Support Strategies within University Education

Kyung A Son¹, EunKyung Moon², Hyunjin Jung³, Hoilym Kwon^{4*}

¹UNIST, ²Eulji University, ³PSICOMPASS, ⁴Kore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operational process of a core competency diagnostic system implemented at University A to support future talent development. Using a case study approach, the research analyzed the experiences of 24 undergraduat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ystem, including diagnosis, expert consulting, and follow-up activities.

[Contents] The diagnostic process included regular and optional testing, simplified result reports, and a structured consulting model. Stu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able to interpret their results, reflect on their competencies, and revise their learning plans. Key strategies such as consultant role clarifica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pre-diagnostic guidance were found to enhance student engagement and understanding.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a structured and supportive diagnostic system can promote students' self-awareness and competency development. This case provides a practical model for other universities seeking to implement or improve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assessment.

[Keywords] University Education Core Competency, Competency Diagnosis Operation Procedures, Competency Diagnosis Operation Steps, Competency Diagnosis Support Strategy

* **Corresponding author** Hoilym Kwon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E-mail : kwonhl3@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대학교육에서 핵심역량진단 운영절차와 지원전략에 대한 사례 연구

손경아¹, 문은경², 정현진³, 권회림^{4*}

¹울산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교수, ²을지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

³피에스아이컴파스 컨설팅센터장, ⁴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A대학에서 미래인재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핵심역량 진단의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재학생이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역량진단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도구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부생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핵심역량진단 운영은 진단 - 신청 - 전문가 컨설팅 - 사후 관리 -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 단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기·수시 진단, 필수·선택 진단 운영 체계, 간명하고 직관적인 결과 리포트 제공, 구조화된 컨설팅 절차 등 다양한 지원 전략이 병행되었다.

[결론] 그 결과, 학습자들은 핵심역량 진단 결과의 해석, 컨설팅 과정에서의 재해석, 상담 이후 학습계획의 수정에 이르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컨설턴트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사전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을 통한 진단 인식 제고 등의 운영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사례연구는 핵심역량 진단 결과의 해석에서 맞춤형 피드백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학교육 핵심역량, 핵심역량진단, 역량진단 운영과정, 역량진단 운영절차, 역량진단 지원전략

I. 서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챗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의 활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므로, 이 같은 대전환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개발이 교육혁신의 주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기본 철학, 책무성, 성과 관리와 같은 측면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전공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의 변화는 대학생들의 잠재 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역량 개념은 개인의 지식과 지능이 업무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실제적인 능력이 중요시되면서 부각되었다. 역량은 이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사용하는 지식, 행동, 스킬, 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는 주로 직무 분야에서 국한되어 사용하였으나, OECD(2005)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이후로 일반적 삶의 질과 생애 능력과 관련된 영역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그와 함께 교육분야 적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Kim, & Lee, 2021: 310-312), 최근에는 전 국가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Jo et al., 2018: 259-279). 교육분야에서 역량은 개인의 학습이나 수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OECD, 2005: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은 여전히 지식 중심의 교육 방식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et al, 2020: 360-361; Jo et al., 2018: 261-263). 이러한 교육적 반성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역량의 개념과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5: 9-12).

또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의 흐름 속에서 다수의 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 특성화 사업 및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 등을 통해 각 대학은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이념과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고유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주요 과제로는 학생의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Jin, Shon, & Joo, 2011: 463-465; Kang, & Im, 2019: 235-237).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역량 진단 도구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K-CESA)이다. 이 평가는 많은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간 및 대학 내에서 진단 결과를 비교·공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핵심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역량과 취업성과 간의 관계(Jang, & Lee, 2009: 103-105; Jin, Shon, & Joo, 2011: 465-467), 학업성취도(Lee, & Kim, 2012: 230-233), 개인 특성에 따른 역량 차이(Beak, 2013: 352-355)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 대학에서의 핵심역량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이는 각 대학의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 규명 연구, 대학생의 역량 진단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핵심역량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Sung, 2015: 172-174).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및 강화를 위한 주요 연구들은 진단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Kim, & Lee, 2021: 310-315; Park, & Song, 2016: 18-20; Park et al., 2017: 570-572; Song, 2019: 3-5; Lee et al., 2021: 833 - 835; Jo et al., 2018: 261-265), 이들 연구는 진단 도구를 통해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지도 및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Moon, & Lee, 2015: 3810-3812; Moon, 2019: 61-63; Lee, & Baek, 2022: 835-837; Lee, & Im, 2023: 178-180).

이처럼 대학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대학에서 함양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자,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또는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유의미한 학습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화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Kang, & Im, 2019: 235-237).

일부 대학에서는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와 함께 피드백 코멘트를 제시하는 시스템 사례가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진단 결과를 진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식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Moon, & Lee, 2015: 3810-3812).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계자(관리자, 운영자, 학생)의 역할과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Moon, 2019: 61-63). 아울러, 진단 결과에 기반한 피드백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연구(Lee, & Im, 2023: 178-180),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대학생 핵심역량 지표를 예측한 모형 개발 연구(Lee, & Baek, 2022: 835-837) 등도 학생들의 효과적인 역량 신장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핵심역량을 도출하거나 진단도구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피드백 데이터를 개발하여 개인화

된 진단 리포트를 제공하는 방식 등, 진단도구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나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해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국내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Lee, & Im, 2023: 178-180).

이에 따라 핵심역량 진단 운영의 목적과 시기,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요구된다. 단편적이고 양적인 결과 제공을 넘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진단 리포트의 구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단 결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피드백 경험은 자기 이해와 역량 개발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박영신 외(2017) 역시 진단-피드백 구조가 학습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rk et al., 2017: 572)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 진단 운영 절차 및 지원 전략은 학생 개인의 역량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 혁신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체 핵심역량 진단 도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학부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핵심역량 진단 실시부터 개별 컨설팅 및 전문가 결과 해석, 역량개발 리포트 제공에 이르는 일련의 운영 절차와 지원 전략을 학생들의 실제 의견과 함께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핵심역량 진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사례 연구

본 연구는 대학의 핵심역량 진단 운영체계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단일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관계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특정 제도의 실천적 함의를 밝히는 데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Creswell, 2002: 155; Stake, 2002: 23).

분석 도구로는 손경아, 엄세원, 정현진(2022)이 개발한 A대학 6대 핵심역량(창의적 기획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상호협업능력, 글로벌리더십)을 측정하는 진단 도구(Shon, Um, & Jung, 2022: 190)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검증된 측정 도구이다.

본 연구는 이 진단도구를 기반으로 핵심역량 진단 운영 절차에 참여한 학습자의 실제 경험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식한 변화와 그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핵심역량 진단이 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습자 수준에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핵심역량 진단을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대학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A대학은 2021년부터 진단-분석-피드백-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역량 기반 진단체계가 정착단계에 진입한 사례로서 분석 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A대학 학부 재학생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선정은 A대학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진단을 실시한 후, 각 핵심역량 영역별 점수가 상위권에 분포된 학생을 ‘강점 역량 보유자’로 정의하고, 역량군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역량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학생을 균등하게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 13명(54.2%), 여학생 11명(45.8%)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명(33.3%), 2학년 6명(25.0%), 3학년 5명(20.8%), 4학년 5명(20.8%)이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과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분포
<Table 1> Profile and Distribution of Study Participants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13	54.2	강점 핵심 역량	창의적 기획력	3	12.5
	여	11	45.8		융합적 사고력	6	25.0
학년	1학년	8	33.3		문제해결 능력	4	16.6
	2학년	6	25.0		상호협업 능력	4	16.6
	3학년	5	20.8		의사소통 능력	4	16.6
	4학년	5	20.8		글로벌 리더십	3	12.5
총 합		24	100	총 합		24	100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A대학의 핵심역량진단 운영 절차에 따라, 진단 실시부터 사례 분석 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핵심역량

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24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컨설팅이 완료된 후에는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기타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모든 진단 운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체 경험을 바탕으로 과정별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Creswell의 질적 연구 절차(Creswell, 2002: 209)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전사된 인터뷰 텍스트를 바탕으로 주제 중심의 초기 코딩을 실시하였고, 유사한 코드들을 범주화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를 거쳐 분석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표 2> 연구 절차
<Table 2> Research Procedure

연구 절차	내용
1. 핵심역량진단 실시	재학생 전체 핵심역량진단 실시하여 진단 결과를 확보함
2. 연구 대상자 선정	컨설팅 신청자 중 학년과 강점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함
3. 학생 인터뷰 실시	연구 대상자는 핵심역량진단 과정에 모두 참여한 후, 학생 인터뷰를 실시함
4. 자료 분석	연구자가 질적자료를 코딩하고 분석함
5. 내용 타당도 검증	연구자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한 연구 대상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음
6. 사례 분석 결과 도출	핵심역량진단 운영과정에 참여한 재학생의 경험을 토대로 운영절차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지원전략 등을 도출함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진단 결과 자료와 학생 컨설팅 과정을 통해, 재학생이 전반적으로 인지하는 강점 역량, 취약 역량, 개선을 희망하는 역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인터뷰 실시 전,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질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충분한 작성 시간을 부여한 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모두 전사한 뒤, 연구팀 4인이 분석 기준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 교차 코딩(cross-coding)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에 포함된 주요 어휘, 과정, 주제 등을 식별하고, 일정한 코드 체계를 부여하였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범주를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핵심역량 진단의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한 재학생의 관점에서 전체 절차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생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

구진이 도출한 분석 결과가 실제 상황의 맥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인터뷰 참여자를 통해 검토하는 검토 확인(member checking)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방안

본 연구는 핵심역량진단 운영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역량 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운영 전략, 안내 방식, 진단결과 리포트 구성, 컨설팅 대체 수단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해 수집된 의견이 일부 참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 집단의 의견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언급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응답자 간 상충되는 진술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아울러, 분석된 결과가 학내 유관 부서의 실질적 운영 현황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반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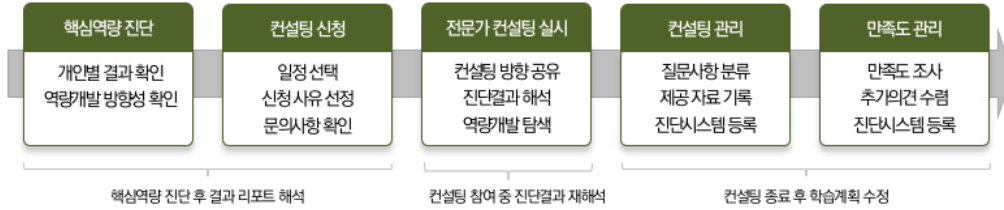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각자 코딩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차 검토(cross-review)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주제와 범주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절차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코딩된 주제들이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의 개념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코딩 체계를 수정·보완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핵심역량진단 운영절차와 경험

A대학의 핵심역량진단 운영 절차는 단순히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이 진단 결과를 자신의 역량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역량진단 운영 프로세스는 핵심역량 진단 실시, 결과 리포트 확인, 컨설팅 신청, 개별 컨설팅 및 사후 관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운영 절차를 통해 재학생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컨설팅에 참여하며, 컨설팅 종료 후에는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자신의 학습 계획을 수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핵심역량진단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그림 1] 핵심역량진단 운영절차에 따른 학습자 경험

[Figure 1] Learners' Process Flow Based on Core Competency Diagnosis Operation Procedures

1) 핵심역량진단 후 결과리포트 해석

진단결과 리포트에 제시되는 점수는 학습자의 핵심역량 수준 및 진단 참여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일부 역량 진단에서는 원점수(raw score)가 아닌 표준점수(standard score)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핵심역량 진단은 역량 수준을 서열화하거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 인식과 자기 점점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본 진단에서는 표준점수 대신 원점수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낮다고 인식한 역량과, 통계적 보정을 통해 도출된 낮은 역량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학습자의 자기 인식과 실제 피드백 간의 불일치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점점 기반 진단의 목적은 학습자의 역량 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촉진에 있는 만큼, 원점수에 기반한 진단결과 해석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 학생용 진단결과리포트: 원점수 제시

[Figure 2] Student Diagnosis Report: Display of Raw Scores

다만, 진단 결과를 원점수를 기준으로 리포팅할 경우, 복수의 핵심역량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가장 낮거나 높은 핵심역량을 단일하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진단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한해 표준점수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거나 높은 핵심역량을 판별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 리포트가 설계되었다.

진단결과 리포트는 자가 진단을 기반으로 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강화 대상 역량’과 가장 점수가 낮은 ‘개발 대상 역량’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자기 인식과 피드백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리포트에는 6대 핵심역량별 본인의 점수, 학년 평균, 전체 평균을 포함한 비교 데이터를 방사형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 수준을 다양한 기준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학생용 진단결과리포트: 특장점 및 보완점 제시
[Figure 3] Student Diagnosis Report: Strengths and Improvement Points

하위역량 분석에 있어서는, 진단 결과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세 가지 하위역량을 선정하여, 해당 역량이 낮다는 것이 학습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취약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세 하위역량 중 가장 점수가 낮은 한 가지 역량에 대해서는, 해당 역량을 개발하기 위

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교과, 비교과, 연구 활동 영역에서의 추천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은 학습자가 진단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진단결과 리포트는 재학생들에게 상세하고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핵심역량에 대한 자아성찰이 가능한 의미로 나타났다.

‘저의 강정과 약점을 그래프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연구 참여자 1)’

‘하위역량 3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고 추천프로그램까지 제공되어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연하지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2)’



[그림 4] 학생용 진단결과리포트: 맞춤형 성장 경로 안내
[Figure 4] Student Diagnosis Report: Designing a Personalized Growth Path

일부 재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핵심역량 평균 점수와 자신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 결과를 제공할 때에는 비교 지표의 활용이 학습자의 자기 인식과 동기 유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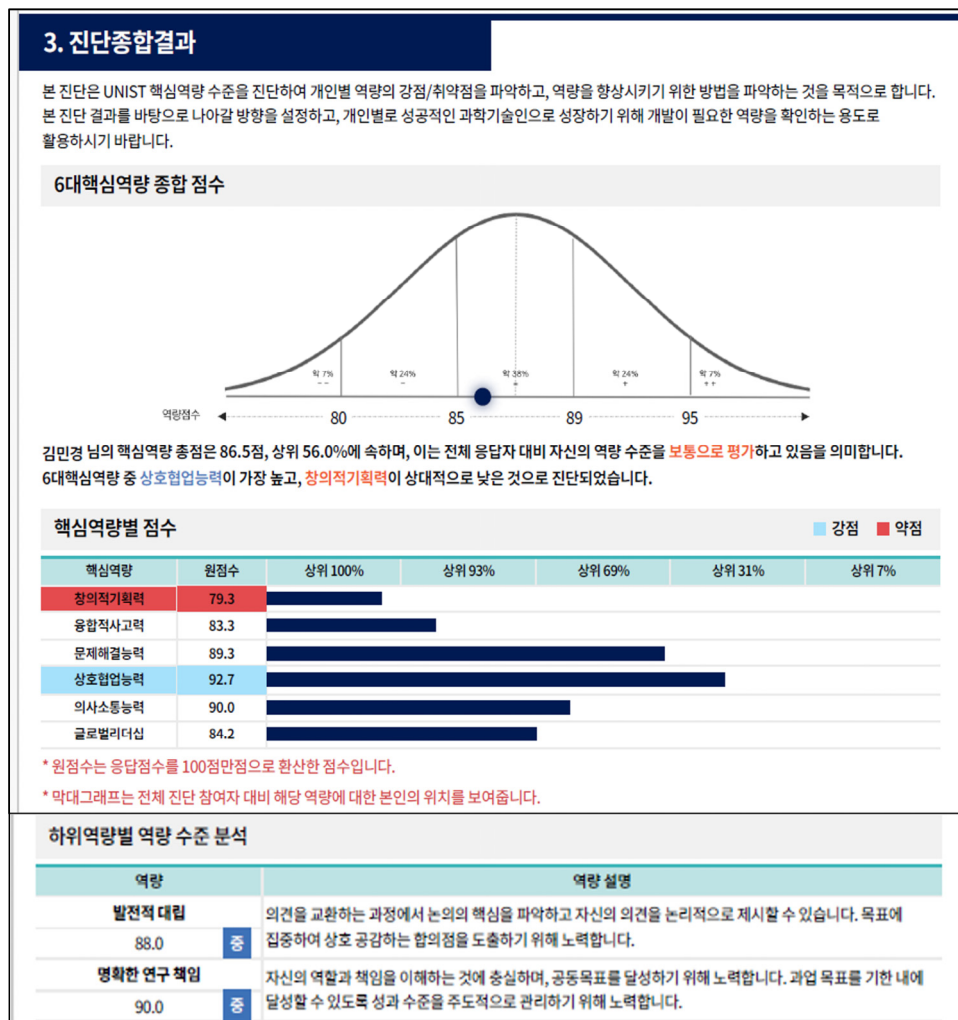
‘상대적 위치에서 제 점수가 너무 낮아서 위축됐어요. (연구 참여자 1,3,8,10)’

‘핵심역량을 높여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상대적 점수를 보니 순간 당황했어요. (연구 참여자 4)’

‘상위 %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본인의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어 좋긴 하나, 스스로 좌절감을 먼저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 참여 전에는 ‘내가 평균보다 낮구나’하는 생각에 약간 좌절하기도 했어요.. (연구 참여자 2)’

2) 컨설팅 참여 중 진단결과 재해석

컨설팅 리포트는 기존에 제공된 진단결과 리포트를 기반으로 보다 심화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주요 구성 항목은 진단 종합결과, 진단 상세결과, 역량개발 피드백, 학내 추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그림 5] 컨설턴트용 진단결과리포트
[Figure 5] Consultant Diagnosis Report

먼저 진단 종합결과 항목은 핵심역량 종합점수, 핵심역량별 점수, 하위역량별 점수 및 강점·약점 핵심역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역량 종합점수와 핵심역량별 점수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집단 비교 시 학습자의 상대적 위치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안내한다. 재진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 진단 결과와의 비교 분석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그림 5]와 같이 제공하였다.

나아가 6대 핵심역량이 실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해당 역량을 발휘할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하위역량별 향상을 위한 실천적 Check Point와 실용적인 Tips, 그리고 각 하위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학내의 교과, 비교과, 연구활동 목록 등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컨설팅 리포트는 학습자가 화면을 통해 제공받은 진단결과 리포트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기대하거나 설정한 핵심역량 목표를 스스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 리포트에서의 원점수 의미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3)’

‘컨설팅에서 집단 비교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사례 등을 제시해주시니까 막연했던 부분이 해결되서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9)’

3) 컨설팅 종료 후 학습계획 수정

컨설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진단결과 리포트와 이에 대한 해석은, 향후 학교생활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컨설팅 내용을 숙지하면서, 진단결과 리포트에 제시된 강점, 취약점, 하위역량 개발을 위한 팁 및 추천 프로그램 등의 정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현재 자신의 역량 수준은 어떠한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계획이 핵심역량 진단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설명하고,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의 반응을 통해, 진단 결과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와 자기주도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핵심역량 진단 운영이 단순한 통계적 결과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화된 컨설팅을 통해 실천 가능한 역량 개발 계획 수립과 학습계획의 수정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핵심역량 진단 운영 체계가 학습자의 내면적 변화와 실행 중심의 자기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졸업 후 진학할까 취업할까 고민이었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의 강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두려움이 앞서 피하려고 했지만 다시 용기내어 대학원진학을 준비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연구 참여자 3)’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의 강점과 취약점을 이해하는 용어들을 알게 되었고, 잘 정리하면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6)’

‘연구활동하면서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진단결과 문제해결력은 높는데 상호협업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컨설팅 과정에서 구체적인 팁을 얻고 반영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팀 활동할 때 나의 스타일에 맞추기보다 더 소통하고 들으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연구 참여자 7)’

2. 효과적인 핵심역량진단 운영을 위한 지원전략

1) 역량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진단 시기의 중요성

진단 시기는 진단 대상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진단 운영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정기진단은 역량 개발에 대한 성찰과 계획이 학생의 학교생활 과정에서 주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시진단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직후 핵심역량을 진단하게 되면 학습경험과 관련된 일부 문항에 응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은 입학 6개월 이후에 실시하였다. 이후 2년 후 재진단을 통해 자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운영 시기를 조정하였다.

진단 운영 시기는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학기는 23월, 2학기는 89월 중에 설정하였다. 정기진단은 모든 학생이 필수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부생은 총 2회, 대학원생은 1회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반면, 수시진단은 참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습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표 3> 핵심역량진단 운영 시기
<Table 3> Core Competency Diagnosis Schedule

구분	학부생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정기진단		●				●		
수시진단				●				●

학습자의 학사일정과 핵심역량 함양의 시기를 고려하여 설계된 핵심역량 진단 운영 시기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역량 개발 수준을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핵심역량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기 객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해당 운영 체계의 강점으로 평가하였다.

‘갓 입학한 3월보다는 9월에 진단하는 것은 대학교 생활을 해본 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 21)’

‘간이진단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언제든 자가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6, 13)’

‘예비학교개념으로 입학 전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0, 19)’

‘피드백 데이터 좋은 것 같고, 아마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학년별로 반응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신입생인 1학년, 4학년 졸업 전에 시행해서 추이를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5)’

‘니즈가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3, 8)’

2) 학습자 이해 중심 핵심역량진단 결과리포트 내용 구성 및 간명성

A대학의 핵심역량진단 운영은 정규 진단 시기에 맞추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단결과 리포트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학습자는 제공된 리포트를 확인한 뒤,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컨설팅 제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습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핵심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경우, 학습자가 진단 결과를 오해석하거나 단편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포트 내에 상세한 해석 가이드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그림 6] 참고). 아울러, 학습자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결과 리포트는 체크포인트와 활용 팁 중심으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정보가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는 진단 이후 단계의 학습자 자기주도성을 유도하고, 컨설팅 미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컨설팅 참여를 고려하는 학습자에게도 판단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핵심역량 진단 내용과 관련 정보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단 결과지가 너무 복잡하고 글이 많다보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과 해석 방법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꼭 짚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죠. (연구 참여자 1, 6)

진단 해석 방법 및 컨설팅 안내 (국문)

제시한 데이터는 다음의 가이드에 따라 해석하십시오.

1.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역량 수준을 확인하세요
본 리포트는 본인의 현재 역량 발휘 수준에 대해 객관적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응답자 스스로가 응답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본 진단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탐색하여 개발 노력을 이행할 수 있음을 가정합니다.
경험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역량 개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2.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역량 수준에 집중하세요
본 결과리포트는 타인 대비 본인의 위치(T점수)에 집중하기 보다는, 스스로 파악한 본인의 역량 수준을 원점수(최저점 60점, 최고점 100점)로 리포팅함으로써 스스로 느끼는 강점/취약 역량을 파악하는데 집중하도록 합니다.
3. 타인 비교 그래프에서 낮은 집단에 위치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자가진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진단 시 가혹화 및 관대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타인 비교 그래프에 표기된 본인의 위치가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수준 대비, 본인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역량의 점수 추세를 통해 향상된 역량과 그렇지 않은 역량을 파악하세요
최초 진단 시의 역량 점수와 현재의 역량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점 1점, 최저점 -1점으로 표시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최초 진단 점수와 현재 점수가 동일한 경우 0점으로 표기됩니다. 이를 통해 발휘 수준이 향상된 역량과 하락한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 개발 시사점을 찾아보세요.
향상된 역량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해 왔는지 ‘역량개발 게시판’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5. 학내 프로그램 리스트 통해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시어 강의 시간표를 구성하세요
본인 응답점수가 가장 낮은 역량에 대해 해당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 비교과,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강의 시간표를 구성하세요.
6. 역량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역량개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컨설팅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합니다.

[그림 6] 핵심역량진단 결과해석 가이드 (예시)

[Figure 6] Core Competency Diagnosis Result Interpretation Guide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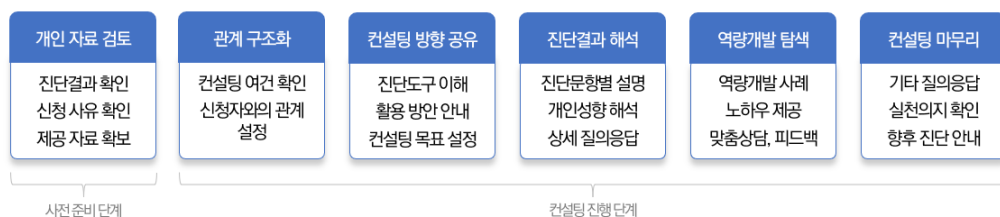
‘이력서 작성 전 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내 강점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컨설팅 과정에서 설명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0, 17, 18)’

3) 컨설팅 프로세스 구조화

컨설팅 운영은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개별 학생 대상 상담의 성격을 지니므로, 그 절차는 청소년 상담 및 직업 상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담 절차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상담 구조화 단계를 절차 내에 포함하였다. 상담 구조화는 컨설턴트와 상담 신청자가 상담의 전반적인 진행 방식, 역할, 목표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논의하는 단계로, 상담의 방향성과 체계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Fromm, Kim trans., 2008: 112; Kim, 2004: 127).

상담 과정에서 구조화를 실시하는 것은 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높이고, 상담 전반에 대한 몰입도와 심층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9: 5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구조화 과정을 통해 진단에 대한 이해, 절차 안내,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상담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 따라 A대학의 전문가 컨설팅 프로세스는 [그림 7]과 같은 단계로 구조화되었다. 우선, 컨설턴트는 진단 결과 및 컨설팅 신청 사유를 확인하는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 이후 컨설팅 여건을 확인한 후 신청자와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진단도구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컨설팅 목표를 설정하고, 진단 결과에 대한 심층 해석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서 학습자가 역량 개발 방법을 자발적으로 탐색하거나, 컨설턴트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 맞춤형 상담과 피드백을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 종료 전 기타 질의 응답과 실천 의지 확인 과정을 통해 컨설팅을 마무리하였다.



[그림 7] 핵심역량진단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프로세스

[Figure 7] Core Competency Diagnosis Operation and Expert Consultation Process

‘내가 이해한 진단 결과가 컨설팅 과정에서 더 명확해졌어요. 진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1, 16, 22)’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2, 5, 11)’

4) 컨설턴트의 역할 정립 및 역량 개발 지원

핵심역량 진단결과 리포트를 통해 학습자는 1차적으로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을 인지하고, 기대 수준 대비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컨설팅에 참여할 경우, 컨설턴트는 진단 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해석과 교육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컨설턴트의 전문성은 핵심 요소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컨설턴트에 따라 컨설팅의 질적 수준이 편차 없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각 단계별로 권장하는 상담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표준화된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6대 핵심역량의 특성은 학년, 전공, 진로 목표에 따라 성취 수준이나 선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학습자의 진단 결과뿐 아니라, 해당 학생의 진로 방향과 학업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진단 해석을 넘어, 사회 변화, 전공의 특수성, 학습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포함하므로, 컨설턴트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컨설턴트에게 기대했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진단 시에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어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설명들으니 어느 정도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1)’

‘본인에게 중요도가 낮은 역량이 취약하게 나타났을 때 피드백이 해당 역량으로만 이루어지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

‘6대 핵심역량 중 본인이 생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평가 결과와 피드백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 시에도 중요도를 평가하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예를들면, 글로벌리더십이 가장 낮았지만 현재 전공분야 특성상 기술발전에 초점을 두다 보니 글로벌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요도가 낮은 역량인데 반해, 취약한 역량이라 나왔고 스스로도 역량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보니 피드백이 글로벌리더십 위주로만 된다면 아쉬울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연구 참여자 7)’

‘현재까지 전공 과정으로는 ‘창의적기획력, 융합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역량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이지만 ‘상호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글로벌리더십’은 현재 전공에서 중요하지 않고 발전

시킬 기회가 많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웠어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9)’

5) 역량개발 당위성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의 필요성

A대학의 역량개발 진단은 정기 진단 시기에 맞추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습자가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을 평가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의 경우 핵심역량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역량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핵심역량 진단 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에게도 간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진단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대학에서는 역량개발 진단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의 개념과 개발의 당위성, 그리고 이를 함양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진단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고,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학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 진단결과는 타인과 비교를 위함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더 솔직하고 집중해서 응답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6, 13)’

‘핵심역량진단과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면 더욱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9, 15)’

‘컨설팅 신청페이지에 ‘컨설팅 참여후기’란을 만들면 사람들이 후기를 보고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0)’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핵심역량 진단도구 및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시범 운영한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역량 진단의 운영 절차 및 지원 전략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2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진단 실시, 개별 컨설팅, 전문가의 결과 해석, 역량개발 리포트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학생 인터뷰 및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대학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 -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후 관리 - 만족도 평가에 이르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운영 체계는 단순한 결과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자신의 역량 수준을 객관화하며,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에 대한 해석을 심화·재구성하도록 유도하였다. 나아가 컨설팅 종료 후에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정·보완하며 핵심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의 대학 단위에서 핵심역량이 도출되었거나 진단도구는 개발되었으나, 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Lee, & Im, 2023: 176-185). 본 연구는 진단검사 운영 모델 개발에 있어 하나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안정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맞춤형 컨설팅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그 가능성을 일부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 절차는 다양한 진단검사 운영 모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실용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역량 진단이 학습자의 자기 이해와 역량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진단 결과에 기초한 피드백이 학습자의 역량 개발 계획 수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Park et al., 2017: 567-595), 온라인 기반 진단 - 피드백 시스템이 자기주도성 및 학습계획 수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Moon, & Lee, 2015: 3807-3818).

둘째, 효과적인 핵심역량진단 운영을 위한 주요 지원 전략으로는 적절한 진단 시기 설정, 직관적이고 간명한 결과 리포트 제공, 안정적인 컨설팅 운영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세스 마련,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 그리고 역량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들이 전체 진단 운영 절차 속에서 유기적으로 반영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진단 시기는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으며, 이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진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체계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진단 결과 리포트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또한, 진단결과 리포트는 학습자가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었으며, ‘핵심역량진단 결과 해석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여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들도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컨설팅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컨설팅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단계별 스크립트를 제공하였으며,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학습자가 실제로 원하는 역량 영역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컨설팅 장으로 구현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진단 운영이 단순한 시스템 절차 수행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성찰하고 진단 결과를 ‘의미 있는 도구’로 인식하는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진단 결과를 보면서 막연했던 진로 방향이 구체화되었다”(연구 참여자 3),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 강점을 표현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6)와 같은 진술은 핵심역량진단이 학습자의 자기이해와 진로 구체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 역시, 향후 핵심역량진단 운영방안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기준과 실행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핵심역량 진단부터 진단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학습자의 핵심역량 진단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운영 절차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단편적인 진단 도구 제공을 넘어,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활용을 유도하는 전 과정 중심의 진단 운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의 성과관리 관점에서 볼 때, 핵심역량 진단 결과 데이터는 단과대학, 학과, 개인 단위로 축적 및 분석이 가능하므로, 대학이 설정한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비추어 핵심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선 및 수업 운영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핵심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진단 운영을 위한 지원 전략을 개인 맞춤형 피드백에 초점을 두고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이는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진로 방향, 역량 수준을 고려한 정밀한 피드백 설계를 통해 진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진단 - 컨설팅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핵심역량을 해석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경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 차원을 넘어, 학습자의 내적 수용과 해석을 통한 교육적 변화를 진단 운영의 주요 성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학생 중심 진단 피드백의 실천적 효과’를 강조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Park et al., 2017: 567-595; Moon, & Lee, 2015: 3807-3818),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 역시 학습자들이 이 진단 시스템의 구조와 목적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진단 운영은 A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단도구의 구성 요소와 진단결과 리포트의 활용 방식은 해당 대학의 교육 체계 및 학습자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대학에 국한되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진단의 운영 절차

및 실행 전략은 타 대학에서 핵심역량진단 체계 구축이나 운영 방향 설정 시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충분히 참고될 수 있다. 따라서 타 대학에서 본 운영 절차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각 대학의 규모, 학제,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한 수정 및 재구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인터뷰 및 컨설팅 사례는 이 중 24명의 학습자에 국한되어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진단 운영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학년, 단과대학/학과, 성별, 국적(내·외국인)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진단 결과와 컨설팅 참여 사례를 추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성 높은 실증 자료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적 확장은 핵심역량진단 운영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효과의 신뢰도 및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ak, P. G.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7(3), 349-387.
- Creswell, J. W. (200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2nd Ed.,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Jin, M. S., Shon, Y. M., & Joo, H. J. (2011).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29(4), 461-486.
- Jo, K. P., Joo, H. J., Choi, J. A., & Bang, H. W.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re Competency Diagnostic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55, 259-279.
- Kang, J. H., & Im, G. H. (2019). The Effects of Internal Accreditation on the Quality Improvement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Contents*, 20(7), 233-243.
- Kim, H. U., & Lee, H. M. (2021). Development of the Core Competences Diagnostic Instrument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2), 307-331.
- Kim, I. G. (2004). A study on the contents and methord of structuring for counsel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5(2), 119-136.
- Kim, J. M., Kim, I. S., & Kwon, J. K. (2020). Study on the Core Competencies Instrument

- Develop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2(3), 357-382.
- Kim, S. M. (2009). *Development of Korean authenticity scale and verification of relational model on counselor's authenticity and working alli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Kwon, S. A., Kim, J. H., Park, Y. H., Kim, H. S., Kim, E. J., Min, S. Y., & Ryu, S. M.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iagnostic Tool of Core Competencies Based on BARS: A Case of K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7(1), 197-228.
- Lee, h. J., & Im, S. H. (2023). Identification of Components and Development of Prototype for a Core Competency Assessment Feedback System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3(9), 176-185.
- Lee, J. I., & Kim, J. H.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2), 227-246.
- Lee, J. Y.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ssessment Tool for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using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 H., & Baek, E. J. (2022). Development of a predictive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core competency index using machine learning: Focusing on D Univers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1), 831-849.
- Moon, H. J. (2019). Establishment of university competency-based comparison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 19(3), 59-80.
- Moon, Y. K., & Lee, K. J. (2015).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Online System to Improve Undergraduate Students' Compet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807-3818.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Executive Summary*. OECD.
- Park, D. Y. (2006). A study on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core competency style test f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8(2), 225-245.
- Park, Y. S., Ahn, H. N., Jang, M. S., Yang, G. S., & Kim, K. Y.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Evaluating Core Competency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9(4), 567-595.
- Shon, K. A., Um, S. W., & Jung, H. J. (2022).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y Diagnosis Tool and Competency Development Guide for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4(1), 187-211.
- Song, Y. S. (201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re Competency Diagnosis System for Undergraduates: A Case of A Korean Universit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4), 1-21.
- Stake, R.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옮김 (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 Sung, M. K. (2015). Identifying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Competencies and Suggesting Strategies to Develop a Learning Program to Enhance Competenc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1(1), 171-188.
- World Economic Forum (2025). Future of Jobs Report 2025: Skills Outlook.
- 김계현 (2008). 카운슬링의 실제(개정판).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G. H. (2008). *The practice of counseling* (revised ed.). Seoul: Hakjisa.